

##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 7강 온전함의 열쇠(4) : 가치관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말이 ‘잘 살아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부자예요’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부자’와 ‘잘사는 사람’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며 있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동의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의식중에 잘 사려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분쟁의 원인은 정욕, 즉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이제는 물질로 옮겨갑니다.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문제지요.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충분히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는데, 스스로 가난하게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변질되면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했으며, 분쟁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내용도 변질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아니라고 하면서, 참된 신앙이란 말을 통제하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중에 돌아보는 것이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정결의 예로서, 물질중심의 가치관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 1. 물질에 대한 욕심이 믿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여기에서 ‘너희’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크리스천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되는 탄압과 박해가 있었고 결국,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다 보니 삶의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기반

은 무엇보다도 땅이었는데, 땅이 없으니 대부분이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땅 주인들의 착취가 심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농사를 버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신흥도시를 건설하고 세계를 향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도시가 생겨나면서, 생필품의 수요가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렵게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흠어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장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작농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어려웠던 교회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자극했고, 그러면서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질의 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 졌어요. 두 마음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다른 마음은 이미 돈에게로 가있어요.

따로따로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

야고보의 눈에는 결코 그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충분히 부요하고 높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이런 욕심이 들어오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가치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 2. 가난의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들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선지도 명백합니다.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아무 도시에 가서’ 여기서 아무 도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 도시로나 무작정 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this city!’입니다. 도시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정된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 가서’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상이 되는 도시들 중에서 한 도시를 선택했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미 시장조사도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일 년을 유하며’ 일 년 정도면 되겠다고 체류기간도 정했습니다. 가서 뭘 할 것인지도 정했습니다. ‘장사를 하리라’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지, 그리고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 세웠습니다. 목적도 확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목적이 뭐니까? ‘이를 보리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세요, 무모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

됩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어요.

보세요, 무모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치밀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 3. 그 결과는 혼돈과 허무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말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치 일 년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도 모르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서 ‘안개’로 번역된 헬라어 ‘아트미스(ατμίς)’는 ‘연기’ 혹은 ‘증기’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야고보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인간의 생명은 허무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침에 나가보면 안개가 자욱해요. 그럼 잘 안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화문 일대를 30미터 두께로 질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 한잔의 물이 600억 개의 입자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보면 그저 물 한잔에 불과합니다. 골짜기에 자욱이 끼어 앞을 못 가리게 하던 안개도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했으니까 끝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거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제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3살인가 어릴 때였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신기한 일이 자기가 돈을 주고 과자를 사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멀리에 있기에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그 때 현우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오백 원'이었어요. 5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가면 과자를 주거든요.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오백 원....궁금하면 오백 원이 아니라....돈의 가치를 배운 것입니다.'오백 원 주면 사탕도 주고, 장난감 시계도 주는구나.'오백 원의 가치를 알게 되니 욕심이 생겼고, 욕심을 이루려고 말을 배웠습니다. 한번은 친척 어른이 오셨는데, 또 오백 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여우셨는지 5000원 짜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500원을 달라고....현우가 보기에는 돈이 아닌 거지요. 옆에서 제가 그랬어요. 야 받아 저건 500원짜리 10개야....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 살짜리가 그러니 귀엽고 예쁘지만, 다 커서도 그랬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간단합니다.

오백 원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천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백 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큰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눈에는 결코 그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충분히 부요하고 높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이런 욕심이 들어오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세상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지금 야고보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가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요지는 인간 삶의 불확실성과 인간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허무와 혼돈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 4. 이 혼돈과 허무에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에서 '도리어'라는 말은 1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즉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이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계획, 내 뜻보다 더 높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겸손을 가리켜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는 자세이고, 알고 따르려는 자세이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망설임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16세기 영국의 퓨리탄(Puritan)들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대화할 때, 'Deo Volente 데오 볼렌테' 즉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뒤 경건한 그리스

도인들도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싸인(sign)을 할 때도 끝에 D. V. 라고 했습니다. Deo Volente의 약자입니다. 또 무슨 행사를 계획할 때 그것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지에도 역시 D. V라고 싸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표현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과연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1:18절을 기억하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 주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즉 우리는 이 '주의 뜻'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주의 뜻, 진리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고, 자라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에게서 '주의 뜻'을 뺀다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 5.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한 죄입니다.

16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도'는 헬라어로 'δε'는 본래 '그런데'의 의미로 야고보가 의도하는 문제로 되돌립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알라조네이아(αλαζονεία)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떠돌아 다니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전 마을에서 자기가 누구를 고쳤는지, 어떤 병을 낫게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아무도 모르지요. 세상의 부와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팔이 의사의 허풍처럼 허망하다는 거지요.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진정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일까요? 이것은 허탄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것을 순간적이고 찰라적인 것과 맞바꾸는 장사꾼이요,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어리석은 에서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욕심에 끌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욕심으로 나누어진 '두마음'입니다.

언제부턴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얻는 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성도는 자량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자량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있어요.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자라니 돈을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자라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면 쓸데없는 욕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 쪼어요. 두마음입니다. 한 쪽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다른 마음은 이미 돈에게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선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축복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6.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5절에서 연결됩니다. 즉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행이라면 남을 돕고, 구제하고, 돈 좀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인 선행은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악이란 뭐냐? 반대지요. '오늘만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생명에 대하여 모르고 영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들! 자기 한계도 모르고 인정도 안해요!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세속적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추구하면

서, ‘내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 곤경에 빠진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행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눅 10:30-36).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